

史料 인용한 교사 보안법 기소

‘전사모’ 5·18 특별법 헌소 추진

이중윤 목사의 5·18 폄하 발언

5·18 민중항쟁의 역사적 진실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5·18 민중항쟁 사료(史料)를 인용해 학생들을 가르친 경남지역 대안학교 교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서 5·18관련 단체가 검찰에 항의하고 나섰다.

5·18 진실 뒤흔든다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을 사랑하는 모임(전사모)의 5·18 특별법 헌법소원 제기 움직임 ▲서울교회 이종윤 목사의 5·18 폄하 발언 ▲포털사이트 다음의 5·18 관련사진 삭제 등 5·18 정의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차원의 보수화·우경화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지만 대법원 판결과 입법 절차에 의해 규명된 역사적 진실마저 뒤흔든다는 점에서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5·18 기념재단과 (사)5·18 민주유공자유족회 등 5·18 관련단체들은 경남 창원지법 진주지청이 5·18 관련 사료를 인용했다는 이유로 대안학교 최모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항의 서한을 검찰에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항의 서한에서 “최 교사가 제작하면서 사용한 교재에 ‘광

주 시민 쫓겨간’ ‘광주 출정자’를 인용한 사실을 검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의 기소 내용에 포함시켰다”며 “검찰의 이 같은 판단은 이미 법률적 판단이 종료된 사건의 일반적 사료를 인용한 것을 확대 해석한 것으로, 이는 자칫 국민의 5·18에 대한 인식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5월 관련단체들은 이에 앞서 지난 23일 예배 도중 5·18 민중항쟁을 왜곡한 서울교회 이종윤 담임목사에게 공식사죄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이들은 항의 서한에서 “이 목사가 예배 도중 ‘광주 민중항쟁은 북한 특수부대가 투입돼 학살과 만행을 자행한 것’이라고 말 한 것은 5·18을 부정한 것”이라며 “이는 5월 영령과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공식 사죄를 요구했다.

또 ‘5·18은 폭동이다’ 등 5·18을 비방하는 취지의 글을 지속적으로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렸다가 수사를 받

았던 ‘전사모’는 ‘5·18 특별법’이 위한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져 광주시민과 5월 관련 단체의 반발을 샀다.

포털사이트 다음이 ‘춧불집회 여대생 사망사실’ 광고 게재를 주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대학생이 올린 5·18 관련 게시물을 “혐오스럽다”며 삭제했다가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복구하는 일도 있었다.

5·18 기념재단 관계자는 “5·18 민중항쟁은 지난 1997년 대법원에서 신군부 집단이 내란 및 내란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역사적 정당성이 확인된 민주화 운동인 데 최근 정권교체에 따른 우경화 바람이 불면서 왜곡하려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특히 국가기관인 검찰이 5·18 관련자료로 교육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종필기자 galee@kwangju.co.kr

법정서 싸운 ‘리니지 혈맹원들’

인기 온라인게임 ‘리니지II’의 혈맹(血盟)원들이 아이템 절도 사건으로 오프라인에서 법정공방을 벌였다.

2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리니지II의 한 혈맹에서 ‘군주’(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A씨는 2006년 초 “당분간 게임을 못 하게 됐다”고 혈맹원들에게 통보했다. A씨는 그러면서 “그 동안 ‘아지트’(혈맹의 안전한 근거지)에 보관된 아이템을 사용하라”며 몇몇 혈맹원들에게 아이디어와 비밀번호를 알려줬

다. A씨는 그 뒤로도 자신의 계정을 관리하기 위해 가끔씩 접속해 비밀번호를 바꾸곤 했다.

하지만 번번이 비밀번호를 물어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자 혈맹원 B씨는 A씨와 의논해 아지트 소유를 다른 혈맹원 C씨에게 옮기고 A씨가 게임을 다시 하면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말 “아이템을 훔치려고 무단으로 내 계정으로 접속했다”며 B씨와 C씨를 고소했고, 이들은 정보통신망 이

“아이템 훔쳤다” 고소 광주지법, 무죄 판결

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정식 재판 청구에 이어 항소심까지 계속된 군주와 혈맹원들의 법정공방은 법원이 혈맹원들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일단락됐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형원)는 “B 씨와 C 씨가 전화 통화로 A 씨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해 들은 점으로 미뤄 계정에 ‘침입’한 것은 아니다”며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김 쓱쓱 자라거라”

장흥군 관산읍 신동 앞바다 김 양식장에서 어민들이 김 포자를 심는 채묘(採苗)작업을 하고 있다. 이번에 채묘된 김 포자는 45일 후인 오는 12월 중순께 수확될 예정이다.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초등학교 입학 기준일 3월서 1월로

광주·전남 취학어린이가 최고 15% 줄 듯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어린이들의 취학 기준일이 현행 3월에서 1월로 바뀌면서 내년도 광주·전남지역 초등학교 취학 어린이가 많게는 15% 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13조(취학의무)에 따라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를 결정하는 취학기준일이 3월 1일에서 1월 1일로 바뀌었다.

이에 2010학년도 취학대상은 2003년 1월 1일~12월 31일생이 적용되며, 2009학년도 취학대상은 2002년 3월 1일~12월 31일생까지다.

2008학년도도의 경우 개정법에 해당되지 않아 이미 2002년 2월 28일생까

지의 어린이들이 입학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출생률 저하와 타지역 학생 유출까지 감안, 2009학년도 광주지역 초등학교 입학생은 예년보다 3천여명(10~15%) 가량 줄어든 1만 5천~1만6천여명, 전남지역도 8천여명(5% 가량)이 줄어든 1만4천여명 수준일 것으로 교육청은 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출산 현상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1, 2월 생들의 입학 유예가 대폭 감소하면서 2010학년도부터는 취학률이 안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같은 나이, 같은 학년’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일관적인 경향으로만 5세나 만 7세 입

학이 일반화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고시원 참사’ 장례식 업무

고시원 흉기난동으로 사망한 여성 중국동포들의 장례식이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27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장례식장 3층에서 엄숙하게 치러졌다.

조 박성숙(52)씨, 이월자(49)씨, 조영자(53·이상 중국동포)씨의 유족들은 그간 돈이 없어 장례절차를 밟지 못하다가 검찰과 경찰, 구청, 기독교단체, 시민 등의 지원으로 이날 장례예배를 올렸다. /연합뉴스

“내기 골프는 도박죄” 대법 확정

‘내기골프’는 도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상소도박 혐의의 기소된 선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63)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모(61)씨 등 2명은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2002년 12월부터 2004년 5월까지 함께 골프장을 다니며 선씨는 26차례에 걸쳐 6억여원, 나머지 3명은 32차례에 걸쳐 8억여원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핸드캡을 정해 18홀 중 절반전 9홀까지의 1타당 50만원, 후반전에는 100만원씩 승자에게 주고 절반전 최스타 우승자에게는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게임을 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은 화투나 카지노처럼 승패의 결정적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는 경기자의 기량과 기량이 지배적으로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다”라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골프는 당사자의 기량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기의 일종이지만, 경기자의 기량이 일정한 경지에 올랐더라도 매 홀 내지 매 경기의 결과를 확실히 예견하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DJ 비자금 명예훼손’ 검찰, 수사 착수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거라기 위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김 전 대통령이 주 의원을 고소한 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형사1부(김주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지난 20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직 검찰 관계자로부터 받았다고 모 은행이 2006년 발행한 100억원 짜리 양도성에금증서(CD) 사본을 공개하고 “DJ 비자금인지 확인해 달라”고 검찰에 넘겼으며 다음 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나원침 (7638) 김장동



다 좋은 건국·산업단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광역시 : 061) 337-0571

방문증 떨어뜨려 납치 미수 덩미

상나팔

○여고생을 납치하려던 20대가 범행 현장에 아파트 방문증을 떨어뜨리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추적에 의해 덩미.

○나주경찰은 27일 여고생을 납치해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하려다 미수에 그친 정모(22·광주시 동구) 씨를 미상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구속.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40분께 나주 모 고교 부근 도로에서 여고생 A(16)양에게 접근, “차가 고장일 났다. 조금 도와달라”고 속인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우려다 실패했다는 것.

○경찰은 정씨가 범행 현장에 떨어진 납치 경기도 모 아파트 차량 방문증을 토대로 차적 조회 등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범행 사물만인 27일 검거. /광평실기자 kps@kwangju.co.kr

자녀가 권하고! 부모는 누리고!

주북연고

한국은행금융공사

아이엘리시아

www.eyelias.com

상품권 판매, 할인차, 각종 모임 및 행사(100석, 50석, 20명 한팀)

0621671-1199